

미국사람과 쓰레기



박 창 근

(본회고문 · 환경교육회 회장)

◎ 미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쓰레기는 하루 건너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차가 오는날, 큰 비닐쓰레기 봉지에 넣어 길가에 두어 수거하도록 합니다.

물론, 분리수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쉽게 돈이 되는 알미늄 빈깡통 이외에는 거의가 한자루에 넣어 버려지게 되는데요, 청소차는 이것을 신자마자 압축시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소각시켜 버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를 뒷말없이 처리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의 합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쓰레기 수거, 처리도 보다 과학화 되어야겠습니다.

◎ 미국의 뉴욕엔 우리의 교포가 공식적으로 90만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합니다.

많은 교포가 「푸로싱」이라는 거리에 밀집해 살고 있는데요, 그 거리는 대체적으로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백인만이 살고 있는 거리나, 일본인들만이 모여 사는 거리에 비해서는 더럽습니다. 생업에 쫓겨 거리를 돌볼 겨를이 없어서이겠지만, 대체로 공유물에 대한 인식이 약한 우리의 나쁜 민족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남의 나라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은 내나라 내땅인데도 동네가 지저분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 조국의 고마움을 깨우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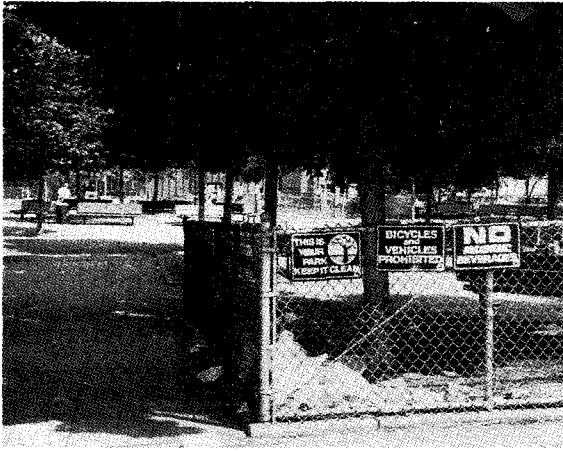
◎ 사람이 사는 곳이 다 그렇듯이, 미국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큰 다리밑 그리고 공장지대의 외진 곳은 우리의 서울보다 더 많이 오물이 쌓여 있어, 지저분하기가 이룰데 없습니다.

물론, 청소를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건성으로 치우고 치웠다고 해도 다음날 또 더러워 집니다.

이런, 미국의 지저분한 면에 비하면 서울은 매우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의 자랑을 깨끗한 것으로 세계에 인상지우는 것도 늦지 않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모여사는 Flushing의 한 공원. 엄연히 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쓰레기 공원이다.

미국의 합리적인 교통대책

◎ 미국 도시의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깨끗한 거리와 그렇지 못한 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깨끗한 거리는 백인들이 많이 살고, 그렇지 못한 곳은 흑인들이 많이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세금을 잘 내는 동네는 매일 청소차가 와서 청소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곳은 1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금을 잘 내는 동네건, 그렇지 못한 동네건 규칙적으로 청소해 주는데, 그런 타성이 혹시 동네를 더럽히는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 미국 L.A.의 후리웨이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보통 한쪽 7~8차선의 큰 도로폭인데도, 워낙 자동차가 많은 곳이라 아침저녁 출퇴근 때인 러시아워에는 자동차들로 도로가 꽉 메입니다.

그런데, 한쪽 차선이 텅 비어, 가끔 자동차가 거침없이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차선은 자동차에 세 사람 이상이 차를 타는 것을 엄근히 장려하는 대책입니다.

우리도 자가용차 태워주기 운동이 생활화되어, 기름도 아끼고 교통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느 나라나 도시의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야 그 도시의 공기가 맑아집니다. 말하자면, 자동차가 도시대기오염의 주범이라면, 자동차를 최소화 하는 일이 배기가스를 줄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의 지하철은 구간 구별없이 1달러짜리 토큰으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이 토큰은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에도 통용됨으로써, 요금의 합리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은 그 이용자가 쉽고, 편해야 많이 이용하게 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 미국의 도시에는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도로변 양쪽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임시 주차장에서부터, 빌딩 틈의 작은 공간을 이용한 간이주차장, 그리고 수 천대의 차를 한꺼번에 주차시킬 수 있는 7~8층 짜리 주차장빌딩 등, 주차를 위한 아이디어가 만발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은 이런 주차장 이용을 엄격히 따르고 있는데요, 불법 주차를 시켰다가 예인되거나 벌금통지를 받게 되면, 정식 주차장의 주차료액보다 무려 5~6배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차에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대기를 맑게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의 주차장 대책이 시급합니다.

◎ 미국 대도시의 거리 구획은, 충분한 도시계획으로 바둑판마냥 정연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책도 매우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4~6차선 이상의 큰 도로 이외의 2차선 정도의 도로는 거의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들이 별로 막힘이 없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릴 수 있는데요, 이 일방통행의 제도는, 언뜻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몇번 이용해 보면,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을 보다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도시 교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중의 명물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는 도심의 전차입니다.

물론, 많은 관광객의 호기심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대중 교통 수단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교통사고의 위험을 억제하고 둘째, 매연을 내뿜지 않아 도시의 대기를 맑게 지켜주고 셋째, 일반인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 옛날에는 낭만적인 전차가 달렸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대기오염이 없는 정말 쾌적한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수단



▲ 도심진입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 빌딩. 지하3층, 지상7층의 이 건물엔 약 800대의 차를 주차시킨다고...

을 적극 활용하여, 도시의 대기오염을 막도록 연구해야겠습니다.

◎ 서울도 자동차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지만, 뉴욕 역시 주차난 때문에 러시아워가 아닌때도 도심에서는 자동차들이 소절음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곽까지 차를 타고 와서는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가용차가 필요할 때 이외에는 지하철을 타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아끼고, 교통난도 해소하는 훌륭한 시민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